

# 어둠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므로 밤에 꼭 불을 켜고 자라

## 앞으로 오는 세상은 죽음이 없는 빛의 세상이다

### 앞으로 죽음이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

얼마 안 있으면 현재 빛을 발하는 태양이 어두워지고, 전깃불도 없어지고, 빛이라는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이 사람 얼굴에서 나가는 빛은 태양빛의 수십 배 밝은 빛이에요. 그런고로 그 빛이 밝아지면 하던 그 빛은 곡선광선인 고로 그림자가 없는 빛인 고로 그런고로 날이 흐려가지고 햇빛이 가려지면 어둑어둑하지만 구세주 얼굴에서 나가는 빛은 곡선광선인 고로 그림자가 없는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 저 있는 상태로 어둑어둑한 그런 곳이 없어요. 아주 밝은 아주 놀랄 정도로 밝은 그런 빛이 발합니다.

여러분들, 빛이 밝고 세상이 환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우울합니까?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렇게 빛이 발할 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픈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픈 사람들이 밤에 많이 아파요, 대낮에 많이 아파요? 대개 밤에 많이 죽어요, 대낮에 죽어요? 대부분 밤에 많이 죽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지는 세상에서는 자연히 죽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죽음이 있을까, 없을까? 죽음이 없어요. 만약 저러다 죽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열려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는데 그거 열려하지 마라.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야, 모르고 짐작으로 얘기하는 거야? 알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만 나이가 500살 먹은 사람이 있어도 죽음이 없어요. 죽지 않아요.

### 안 죽는다고 확신하면 죽지 않아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영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영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죠?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이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으로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안 죽게 되어 있어요. 다 죽어가는 환자도 나니 안 죽는다는 확신을 갖는 환자는 숨이 안 넘어가. 숨이 걸떡걸떡 해도 죽지를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 해 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죠? 정신 차리면 안 죽어. 그냥 숨이 넘어가려고 혈떡혈떡 할 때 내버려두면 죽어버려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안 죽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숨이 넘어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이 나이 먹도록 이 죽음의 세상에서 무슨 경험은 없었겠어요. 다 죽어가는 환자도 옆에서 밤잠을 안자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나씩 그 사람이 숨을 거두지 않아요. 죽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배를 보면 사람이 죽지 않는 게 소문이 나니까 다 죽어가는 환자만 생기면 이 사람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집 저 집으로 불려가서 환자를 위하여 기도해 준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마귀의 신이 어떤 길목을 타고 온다는 것도 알아, 몰라? 어둠을 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방안에 환하게 불을 켜고 하고 어두운 곳이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마귀가 어두운 길목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못 죽어. 이 사람이 기도를 잘해서 그 사람이 안 죽는 게 아니라 길목을 막아버리니까, 환하게 하니가 죽을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 밤에 불을 켜고 자라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잠잘 때에 불을 켜놓고 자라고 그래요. 항상 불을 켜놓고 자요, 불을 끄고 자지 않아요. 불을 끄고 자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그 방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을 켜고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래? 전기세 많이 나가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가도 마귀가 어두운 길목을 타고 오도록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불을 환하게 켜고 자는 그러한 습관이 이 사람은 있기 때문에 이사람 집에서도 되도록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집에서는 자주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불을 끄라고 그래. 내가 불을 켜고 자니까 몰래 가서 썩 끄고 자요. 내가 잠들은 다음에 모르니까 그대로 자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불 끄고 자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예요. 여러분



구세주 조희성님

들도 잠잘 때에 환하게 불을 켜고 자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둠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깜깜할 때 이가 아파도 더 아프지? 이가 더 추시지? 어둠을 때, 깜깜할 때 해만 쬐다하면 아픈 데가 더 아프죠? 신경통 있는 사람 더 아프죠? 그러나 방안에 대낮처럼 환하면 아픈 것이 아파지지 않아요. 아픈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빛의 신이기 때문에 환한 빛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마귀 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징역을 사는데 저쪽 건너편 방에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런데 건너편 방에 불을 안 켜고 자요, 끄고 자요. 껌껌한데 마귀가

막 들락거려요. 이 사람 마귀 움직이는 거를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귀가 들락거리는 거를 보고 불을 켜고 자라고 하니가 불을 켜면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거기서 죽은 송장이 나갔더라고. 마귀가 들락거리는 거는 사람 죽이려고 들락거리는 걸까, 그냥 심심해서 들락거리는 걸까? 사람 죽이려고 들락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잠잘 때에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올 줄 몰라도 항상 켜고 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닮아야 돼, 안 닮아야 돼? 닮아야죠? 어둠 속에서는 항상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다 소멸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생명이 죽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신만 없으면 그냥 바로 순간에 송장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없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음 자체가 생명이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세상 과학자들이 알아? 과학자들도 몰라. 암만 지식은 많은 사람도 몰라요. 신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것이예요.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죽는 거예요. 생명이 죽기 때문에 죽은 사람 마음이 있어요? 암만 표집어 뜬어도 아프다고 하지 않아요.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읍기서 14장 14절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기운이 끊어지니 그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26장 14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리라" 사람이 죽어서 영이 떠나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영도 다 죽었다는 얘기가요? 영이라는 게 생명이요, 생명이 영이예요. 영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혼이라는 게 있는데 혼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라는 주체의식이예요. 각자 사람마다 나라는 의식이 있죠? 그게 혼이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더러 나라는 의식이 나가고 없어졌기 때문에 혼 나간 자식이라 그러죠? 여자는 혼 나간 년이라고 그러죠? 미친 여자나 미친 남자나 혼 나갔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 이 세상 과학자들도 몰라요. 의사들도 몰라요. 이 사람은 잘 알아요. 영계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있을까, 없을까? 영계에 대해서 환하게 아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 혼은 나라는 의식이다

나라는 의식이 사람의 혼이예요. 나라는 의식이 혼인데 뜻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영이 우글거리고 많이 있겠죠? 썩 영이 있을까, 없을까? 썩 영이 나라는 의식을 밀어내고 썩 죽은 사람의 영이 나라는 의식이 돼버리면 바로 사람이 미쳐버려요. 미치는 과정의 근본원인이 바로 죽은 사람의 썩 영이 현재 나라는 의식의 혼을 밀어내고 그 죽은 사람의 영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 미친 사람 짓을 죽은 사람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미쳤는데 자기 남편을 아들처럼 여기고, 자기 아버지를 자기 남편을 아들처럼 여기고 막 이놈아 저놈아 몰도 떠오라고 시키고 그런 걸 나는 봤어요.

그래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혼이라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이 사람은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을 고치는 과정도 이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 미친 사람의 옛날에 잘 놀러 가던 장소 거기에 데려가고, 그리고 미치기 전에 친했던 친구를 데려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 친구와 같이 옛날에 놀러가던 장소로 데려가서 자주 옛날 얘기를 하면 나갔던 혼이 되돌아와요. 나갔던 혼이 되돌아와서 죽은 사람의 영을 밀어내고 다시 나라는 의식의 자리에 앉게 되면 제 정신이 돌아와서 미친병이 나아버려요. 그러나 정신과 병원이나 의사들도 이걸 알아, 몰라? 정신과 병원에서 의사들도 몰라요. 그래서 미치광이 고치는 방법은 이 지구 땅위에 이 사람 하나밖에 몰라. 아는 사람이 없어. 아시겠어요?

신의 세계에 대해서는 마귀가 움직이는 걸 전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대로 마귀를 모조리 멸해서 없애버리는 그 능력의 영이 이 사람 눈을 통해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눈을 바라보면 마귀의 영이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눈으로 마귀를 완전히 소탕시켜버린다고 격양유록 새41장에 쓰여 있죠? 이경기타파멸마(利興機打破滅魔). 바라보는 순간 바로 마귀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정도령은 바라보는 순간 마귀를 소탕박멸시켜서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마귀를 죽이는 능력이 없으면 가짜 구세주예요. 구세주의 자격이 없어요. 구세주의 자격은 사망의 신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2001년 1월 13일 말씀 중에서

### 조희성님의 발자취

# 제주도 훈련병 시절

## 도둑질하는 것을 보지도 않고 도둑놈을 잡다



제주도 훈련소(사진출처: 다음 카페 백봉스토리에서)

멀리 부산에서, 그것도 학교에서 바로 입대를 하게 되었다. 집에서 면회를 울 형편도 못 되었다. 가족들이 미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다른 동료 가족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생사를 기약하지 못하는 석별의 눈물로 환송하는 물결을 뒤로 보내며 제주도도 향하는 배를 탔던 것이다. 그때가 가장 더운 7, 8월이었다. 전장이라는 상황 아래서 신병교육은 너무 혹독하였다. 당장 전투에 투입되어야 할 군인 예비후보자인 만큼 고된 지옥훈련으로 인하여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훈련 중 어떤 동료는 이질에 걸려 죽고, 어떤 동료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탈영도 하고, 또 어떤 동료는 구보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는 등, 별의 별 일이 다 있었다. 전국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훈련도 고되었지만 급식 사정이 지금 같지 않아 몹시 배고픈 가운데 훈련을 하였다.

다른 훈련병들은 가족이 면회를 와서 훈련소 주위의 아주머니들이 파는 가래떡을 사서 먹을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도 없었다. 그 떡이 너무나 먹고 싶어도 그 먹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는 배고픈 설움과 가족의 그리움으로 애달픈 심정이 찢어지는 속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너무 힘든 현실을 달래 보고자 당시 유행하는 유행가의 곡조에 맞춰 노래 가사를 지어 불렀다.

제주도 좋다지만 나는야 싫어  
모습포 뺀고지애 고통이 울면  
낮이면 앞어총애 구보를 하고  
밤이면 내무반애 엎드려 뺨쳐  
호랑이 같은 일등병의 눈치만 본다

이 가사를 지어 부르니 훈련병들 사이에 너나 할 것 없이 널리 유행하였다. 제주도 훈련소를 거친 사람이라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 훈련소에서 도둑놈을 잡다

한창 훈련을 받던 어느 날, 한 훈련병이 상당히 큰 돈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훈련소 중대장님은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화가 나서 전 훈련병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모두 엎드려 뺨쳐를 시키고 누가 도둑질을 했냐고 큰 소

리로 야단하였다. 만약 도둑질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기합을 주시겠다고 엄포를 놔다. 모두 끄덕거리며 힘있게 기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발뺌 일어나서 "중대장님, 제가 도둑놈을 잡을 테니 하라는 대로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 중대장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재빨리 나왔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도둑놈을 못 잡으면 너는 죽을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으셨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물으셨다. 전 훈련병을 죽일 정도로 세운 다음 제 1m 앞으로만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리하여 훈련병 1

명 1명 지나가기를 중간 쯤 지나가는데, 어떤 놈이 딱 내 앞에 오는데 구멍내가 평하고 지독하게 풍기는 것이었다. 바로 "이 놈이 도둑놈입니다"라고 손을 가리키자, 느닷없이 그 놈이 생사람 잡는다고 내 목살을 숨도 못 쉴 정도로 꼭 쥐고 뒤로 밀치는 것이었다. 옆에 있던 중대장님이 "이 손 놓지 못해" 하시면서 귀싸대기를 갈겼다. 그래도 또 목살을 쥐고 생사람 잡는다고 난리가 아니었다. "중대장님! 틀림없이 이 놈이 도둑놈입니다" 그러자 그 놈은 더욱 큰 소리로 이 놈이 생사람 잡는다고 야단이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도둑질 하는 거 내

가 봤어, 네가 돈 어디다 놓 것도 다 알아!"하고 힘주어 말했다. "대장님! 이 놈 잡지러 가마니 밑에 돈이 있으니 가져오라고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 모든 훈련병과 중대장님은 과연 돈이 실마 거기에 있을까 하고 의아해했다. 중대장님이 얼른 훈련병을 시켜 돈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이윽고 훈련병이 정말로 돈을 찾아가고 돌아왔다. 그러자 그 도둑놈은 태도를 바꾸어 "중대장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였다. 중대장님은 "이래도 돈을 안 훔쳐 갔어!" 하면서 그 놈을 죽도록 두들겨 쳤다. 그 맞는 광경을 보니 이 사람은 속으로 측은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 귀신이라고 불리다

그날 이후로 중대장님은 이 사람을 조귀신이라 별명지어 불렀다. 어느 날은 사람을 시켜서 조귀신을 불러오라고 해서 가보니,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느냐고 궁금해 하시며 물었다. 이 사람은 도둑질 하는 사람 몸에서는 구멍내가 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냥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고만 불렀다. 이런 일이 있는 뒤로 훈련병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사람을 조귀신이라고 놀려대며 불렀다. 우리 훈련소에서만 그 소문이 난 것이 아니고, 제주도 일대 부대에도 그 소문이 돌아 유명세를 탈 정도였다. 사람이 어느 정도 마음과 정신이 맑고 깨끗해지면 타인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체취를 냄새 맡고 그 생각을 구분해 낼 수가 있다. 고작 20세의 젊은 나이로서도 영적으로 상당한 경지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좋은 예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다.\*